우암학원 창학 73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71 SINCE 1952

FELICE 승원 팰리체
승원건설그룹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031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5월 5일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수능, EBS 연계 교재·기출문제 위주로 준비해야"

광주진학부장협의회 '2024 수능 경향성 전망과 대비 방안'

국어, 교과서·EBS 교재 지문 밖에선 출제 안 해·6월 모평과 비슷
영어, 기존 문항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변별력은 갖출 것
수학, 기출문제 중 준킬러 문항들의 학습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

"EBS 연계교재가 수능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이하 광주진협)는 21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2024 수능시험 경향성 전망과 대비 방안 발표'에서 "수험생들은 동요하지 말고 EBS 연계교재 위주로 공부해 수능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제외키로 방침을 정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자 설명회를 열었다. 광진협은 실력 광주를 이끌었던 광주진학담당 교사들의 모임이다.

올해 수능에서 국어 과목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지난 6월 모의평가와 유사하게 출제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 담당 신희돈(광덕고 진학부장) 교사는 "정부의 요구는 교과서나 EBS 연계교재 지문 밖의 내용은 출제하지 말라는 뜻"이라면서 "확언할 수 없지만 9월 모의평가(모평)와 수능도 6월 치러진 모의평가와 유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학생들이 보는 EBS연계교재는 '수능특강'·'수능완성'이다.

특히 국어에서는 EBS 교재의 문학·비문학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는 등 EBS 교재 연계율이 한층 구체화할 것으로 점쳐졌다.

실제 6월 모평은 정부의 의중에 일정 부문 부합하는 수준으로 출제됐고 문학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한 독서 영역도 EBS 연계 교재 내용이 적극 반영됐기 때문이다.

독서 영역에서 킬러 문항이 배제될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문학 영역에서 EBS 연계교재와 연관성이 없는 작품으로 난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독서영역 지문에서 추론적 독해를 요구하는 문항의 출제도 예상된다.

영어 과목은 수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특정 문항이 어렵게 출제되던 최근 경향에서 벗어나 6월 모의평가와 유사한 형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됐다.

구체적으로 영어 1등급 비율을 5~7% 선에서 유지하는 변별력은 갖출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지난 6월 모평에서 원점수 기준 90점 이상 1등급 비율은 6~7%대로 추정됐다. 지난해와 2021년도 1등급 비율도 각각 5.74%, 5.51%로 현격한 차이는 없었다.

영어 담당 오창욱(광주진협회장·대동고 진학부장) 교사는 "오답률 상위 5문항 유형을 비교해보면 6월 모평에서는 그동안 고난도 유형으로 분류되던 빈칸추론, 글의 순서, 문장삽입 유형이 기존에 비해 쉬웠다"면서 "작은 변화들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수능 영어는 기존 문항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수학의 경우 킬러 문항이 사라지는 대신 변별력 확보를 위한 준킬러 문항들이 다수 출제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기본개념 학습에 충실하는 것은 물론 개념의 연관성을 잘 파악하고, 새롭게 출제될 유형의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고력을 높이는 문항도 챙겨야 한다.

EBS 수능연계 교재를 꼼꼼하게 학습할 뿐만 아니라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고 해결하기 어려운 유형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지난 6월 모평에서는 9~12 문항에서 EBS교재의 그래프·도형이 인용됐다. 전통적으로 난도가 높은 29번, 30번 문항도 킬러 문항은 아니었다.

수학 담당 박영광(숭덕고 진학부장) 교사는 "기출문제 가운데 준킬러 문항들의 학습에 중점을 두고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학생들이 손쉽게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다수 출제돼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같은 기조가 유지된다면, 신유형 문항을 제외하고서라도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진학부장단 협의회는 정부의 수능 정책에 대해 "공교육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면서도 "학년 초부터 교육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준비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험생들은 다소 혼랍스럽겠지만 수험 공부할 때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평소 자신이 하던 대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서 달밤 야시장·전남서 이색 요트체험 ▶2면
불법 한방병원 적발 … 광주가 전국 최다 ▶6면
최형우 1500타점 … KBO 역사가 되다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진학부장협의회가 21일 광주시교육청 기자실에서 '2024 수능시험 경향성 전망과 대비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신희돈(광덕고 진학부장·왼쪽부터)·오창욱(광주진학부장협의회장·광주 대동고)·박영광(숭덕고 진학부장).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술·담배 구매 연령은 적용 안돼

법제처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정리해 21일 안내했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으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 경우를 빼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권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만 60세 이상인 정년, 경로 우대(만 65세 이상) 등이 해당된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학연령과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 등이 대표적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3분기 전기요금 동결

한전, 1kWh당 5원 유지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 오른 전기요금이 3분기(7~9월)에는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가 현재와 같은 1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되는데,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인 상황이었다.

연료비조정단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은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인 전력량요금을 포함한 다른 전기요금 항목을 조정하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동결됐다.

미세 조정 성격의 연료비조정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한전 전기공급약관의 운영 지침에 따라 한전이 산업부에 인상 요인을 제출하고 정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 뒤 공표한다.

이와 달리 전력량요금 등 다른 요금 인상은 한전의 전기공급 기본약관을 수정해야 하므로 한전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정식으로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져야 하는 연료비조정요금과 달리 나머지 요금은 조정 가능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 연료비조정요금에 맞춰 조정이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전력량요금 등의 인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점은 '3분기 전기요금 동결'로 받아들여진다. /연합뉴스

유럽 첨단기업 6곳 9억4천만불 투자 유치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유럽 첨단 기업 6곳이 총 9억4000만 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사흘째인 21일(현지시간) 오전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유럽 지역 투자 신고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메리스(프랑스·이차전지용 카본블랙), 유미코아(벨기에·이차전지용 양극재), 콘티넨탈(독일·전기차 부품), 에퀴노르(노르웨이·해상풍력발전단지), CIP(덴마크·해상풍력발전단지), 나일라캐스트(영국·고성능 폴리머) 등 6개 기업이 한국 투자를 발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The new EQS SUV
당신이 찾던 럭셔리의 미래.
This is for pioneers.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3(도심: 4.5, 고속도로: 4.1) 1회 충전거리(km) : 471, 공차중량(kg) : 2355, 배터리 용량(kWh) :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